

교 회 목 표

신령한 예배
친구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간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니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골로새 3:12)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 2002 충현교회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환 편집인: 노광현 편집국장: 이형수

발간 요일: 월요일 / 8월 9일 금요일

7. 예언적인 새 이스라엘과 신약에서 이루어질 약속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 새 이스라엘, 약속의 완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이스라엘이 되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종결될 것을 구약에서 예언하였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살지 않는 반역의 아들이 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이스라엘을 만드신 것이다.

순종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시험받았으나 죄는 없으신 분이다(히 4:15).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아들이 되어야 한다. 그는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이지만, 우리와 똑같이 성장하고 시험받았으므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 그러나 그가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우리는 불순종과 반역을 일삼는 죄인이었지만 그는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한, 죄 없는 분이셨다는 것이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과 자신에게 친명의 이름을 주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또 더불어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반역까지도 섬겼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자신을 내어놓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섬기며 완전히 순종하셨다. 우리는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에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한 모든 순종을 찾아볼 수 있다. 이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 그리스도께서는 요단강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고 광야로 간다. 광야에서 예수님은 이 사탄들이 구약에서 끊임없이 실했던 것에 대한 시험을 받는데(마 4:3-10). 그러나 예수님은 이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보여준다. 이 시험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에 대한 것으로 우리에게도 가장 큰 시험들이다.

우리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는 가족과 세상적인 관계에 끌려 하나님의 관계를 망각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했다. 예수님도 육적인 가족이 있었지만, 분명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의 뜻보다 있는 자'라 칭함으로 자매라 했다. 예수님은 절대로 세상의 인간적 관계에 흔들리지 않았다. 사기판과 바리새인들이 주장했던, 그 시대의 정의인 가치와 윤리에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오직 하나님만이 진리임을 실천하는 삶. 이것이 예수님을 갱신하며 동산으로 가게 했다(마 22:42). 이것이 순종이다. 우리도 이 슬픔과 고통의 길, 순종의 길을 가야 한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어기에 있다. 여기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새 이스라엘이 있다(마 4:34). 아버지의 뜻만 있고, 자신의 뜻은 없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마 6:38-39).

예수님을 통해 이룬 순종의 완성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창조하실 때 이스라엘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셨던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주되심과 통치하심을 볼 수 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였고 예수님만이 진실한 아들이었다(마 6:40). 예수님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는 것이었다. 그 목적을 위하여 전적으로 순종하신 것이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교회 밖에서 있을 때 무엇이 할 것은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순종을 모두 이루신 순종의 완성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과 다를 바 없는 완전한 죄인이다. 진실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다.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다(로 5:20). 죄 안에 있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 속에 들어갔으며 교회에서 집례하는 성례에 동참하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을 약속 받은 것이다. 교회 안에 있을 때 교회 밖에 있을 때 우리는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십만 번을 수백에 있다. 특히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더 큰 실패의 대상이 된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예수님의 순종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리가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에 순종하는 행위에 대한 죄값은 클 수밖에 없다.

어두운 죄인의 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지만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과 다른 삶을 사는가? 우리는 예수님을 오히려 선인이 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알고 있는

가? 사랑과 공의의 교환으로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가치와 힘으로 하나님의 일에 반역하고 있지는 않는가?(잠 3:3-5) 이러한 반역의 아들들은 세상의 유익과 멋과 경건한 척 말하기를 좋아하며, 이러한 것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죄에 대하여 말하기를 피한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부끄러운 관례로 존경받으며 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진리를 잃어버리는 행위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 퍼지게 하기보다는 세상의 전통과 자신의 가치를 말하는 것은, 불순종하는 행위에 의식과 속임수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리우는 것이다. 바울은 이와 같은 의식과 속임수에 대해 인내로 경계하며 경계하며 권하고 말한바(딤후 4:2). 이 말은 하나님 영광과 산자와 죽은 자를 삼킨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영히 말한 것(딤후 4:1)이다. 우리는 말면서 이 말을 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경계하며 경계하며 권하는 말씀은 어딘지 그 막연한 말이다. 우리는 어떤 맛과 죄인이라는 말 듣기를 얼마나 싫어하는가? 우리는 죄인이 아닌가?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자신의 공로나 노력으로는 하나님께 갈 수 없다. 십자가만 이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한다. 아무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다. 오직 예수님만이 순종했다. 우리는 이것을 얼마나 자주 의심할 것 있어버리는가? 심지어 생명이 예수님께 임하는 것을 직접 본 세례요한조차도 "오직 그이가 당시요나"라며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의심했다. 인간은 얼마나 형편 없는가?

오직 믿음으로 얻는 순종의 아들의 자격

예수님은 가장 저주받은 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만났다. 그들은 자신을 내보이지 않는 자들이었다. 자신들이 죄인이며 형편없음을 아는 자들이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서 사탄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악을 행하였으니 살 길을 찾으라".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아무런 권리가 없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괴롭게 했던 기도처럼 무효로 기도가 될 것이다. 이러한 기도가 계속된다면 말만 외우는 기대할 것이 없다. 이것은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자가 없으면 버려진 죄인이다. 우리는 무엇을 섬기는가? 인간의 능력과 가치인가? 하나님만이 있는 3:1-2 우리가 우주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명예와 행복을 얻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가? 작은 자들로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직 죄인일 뿐임을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 주는 이는 오직 한 분 순종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다. 확실하게 말하자면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 모든 죄를 보지 않으신 것이다(로 9:25-28). 우리는 단지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것이다. 우리 중에 어느 한 사람도 죽음 외에 다른 것은 기대할 수 없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죽음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의 부활은 순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런데 우리도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의 복과 보람에 참여할 수 있다. 이 약속은 이미 창세기 15장과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의하여 화신할 때나 지되었을 때나 십자가를 지고 회개하며 믿음으로 내어 맡기면 진정으로 순종하면, 마귀들로부터 벗어나서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진리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에 참여하게 된다. 바울은 이 놀라운 진리를 생화하게 깨달았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기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하며 죄인인 우리가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된다.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면죄를 받게 된다(골 1:18-20, 22).

예수님의 절대순종으로 이루어진 언약의 완성

우리는 죽음에서 일으킴을 받았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으로 우리의 부정한 예배도 하나님께서 받으실만한 예배가 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죄인인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께 받으실만한 기도가 되는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아버지 집에 속하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순종을 완성시키고 우리의 배반을 회복시키신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사람을 축복해 주셨다. 다른 진리는 없다. 다른 방법이 다른 지은 없다(골 2:8, 20). 우리의 길은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가는 것이다. 우리 자신이 복과 베풀어 줄 때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셨다. 이제 우리는 죽고 오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안에 있는 것만 바라보아야 한다(골 3:1-4). 우리의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구인가? 진정 하나님이 언약의 완성이 절대 순종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마 14:3).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도록 보충하는 보충인시며,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약속이시다.

안에 거하라

(요 15:7~11)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시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종대 목사

사랑의 권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실 때가 가까워졌습니다. 고난 주간의 목요일 밤에,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의 밤을 잊기시고, 가롯 유다의 배반과 베드로의 부인을 예언하셨습니다(13장). 14-16장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 세상에 남게 될 제자들을 향한 위로와 약속, 그리고 필박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시고, 17장에서는 대제사장적인 중보기도를 하십니다. 1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몸으로서는 제자들을 떠나 있지만 성령으로서는(14:26-28) 몸으로 함께 있을 때보다 더욱 제자들과 연합된 관계로 열매 맺게 하실 것과, 제자들이 필박 중에도 승리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들은 내일이면 십자가로 가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포도원 농부라, 자신을 참 포도나무로, 그리고 제자들을 포도나무 가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님 안에 거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들포도나무 같아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참포도나무이시니 가지가 붙어 있지만 하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만약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더 이상 나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가지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찌합니까?

구원에 대한 감사와 기쁨

예수님께서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내게로 오라’고 하시고(마 11:28),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내 안에 거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효력을 확실히 믿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상태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히 3:1에 보면 “그리스도께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이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히 9:14에서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노”라고 강조하십니다. 롬 5:10,11을 보십시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 되었은즉 화목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오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시니라” 이뿐! 구원에 대한 감사와 기쁨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의지함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무지함과 무력함과 간사함과 악함과 부패함을 절감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는 의가 없으니 자신이 죄인 중의 죄수임을 통감하는 것입니다. 즉 심령이 가난한 상태입니다. 애초부터 태도입니다. 자신이 대해서 혐오감을 가지는 것입니다(고전 15:31, 딤후 1:15).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에게서 돌아서는 것뿐 아니라 예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충만하심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고전 1:30,31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뻐하며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 응답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기도응답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약속이 주어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해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약속만 주장하며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을 때 실망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요 15:7 말씀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약 4:3에는 “구하여도 받지 못한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요일 5:14에서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응답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생활을 하는 성도는 하나님 뜻대로 구합니다. 정욕으로 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한다면 그 생각은 말씀에 의해 조정되고 소망은 말씀대로 형성될 것입니다.

과실을 많이 맺음으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과실을 많이 맺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하나님께 욕이 됩니다. 이 과실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외적인 봉사나 활동을 열매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러하다면 병이나 노령, 또는 역경으로 활동을 하지 못하는 성도는 하나님께 욕이 된다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열매는 바로 갈 5:22-23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외적봉사와 활동을 하는 성도들 중에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병이나 노령, 역경으로 활동을 못하고 있는 성도들 중에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들이 있을 것이고,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활동여부보다는 그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과 화평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인간적인 수양으로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나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고후 5:14), 그리스도의 기쁨(요 15:11), 그리스도의 평화(요 14:27), 그리스도의 온유(고후 10:1)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는 열매입니다. 빌1:1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기를 구하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열매 맺는 성도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계명을 지키므로 사랑 안에 거함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롬 5:8). 요일 2:6에 보면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한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시므로서 항상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순종한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요일 3:23-24를 봅시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니 나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예수님 안에 거하시므로 과실을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승리하는 생활을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

[성경 역사 속의 어머니의 신앙]

엘리사벳



이미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죄악 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실 때에 '너희에게 구세주를 예비할 엘리야를 보내주신다' 고 하셨습니다. 그가 바로 요한입니다. 세상이 악으로 어두워져 있을 때에 백성을 깨우쳐 예수를 예비할 자가 필요했.

하나님께서는 노부부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하여 요한을 보내셨다. 이 노부부는 진실로 하나님께 간구한다. 이들은 레위지파의 자손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였다. 엘리사벳은 두려움 없는 여인이었다. 당시에는 자식이 굉장한 축복이며, 자식이 없는 것은 수치스러운 것으로 인식되었었다. 그러나 엘리사벳은 자식이 없다고 절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하나님께 삶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길을 걸었다. 사라는 자식이 오래도록 없자, 자기의 방법으로 자식을 얻으려고 자신의 여종을 남편에게 주었지만 엘리사벳은 끝까지 하나님께만 의지하며 끊임없이 간구했다(눅 1:13). 그들에게 약속은 없었지만 인내하며 간구했다. 그러한 믿음 위에 하나님은 나이든 어머니나 엘리사벳을 만들었다. 그녀의 믿음은 마리아를 예수님의 어머니 될 자격이 있는 신앙인으로 만들었다.

누가복음은 엘리사벳으로 시작한다. 이것은 믿음의 어머니, 인내의 어머니, 기도의 어머니, 하나님의 섭리를 간구하는 어머니에게 주어진 축복이다. 예수께서 세례요한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는가? 세례요한을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이며, 여자가 나온 자 중 가장 큰 자라고 했다. 엘리사벳은 이러한 요한을 낳았으며 누가복음 처음에 등장할 자격이 있다. 하나님의 천사가 요한에 대하여 이를 때에 사가랴는 질문을 던졌지만(눅 1:18), 엘리사벳은 오히려 신앙의 고백을 한다(눅 1:25).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기다린 엘리사벳을 볼 수 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왔을 때도 엘리사벳의 믿음이 드러난다(눅 1:41-45). 결혼도 안 한 어린 소녀가 임신을 했으니 일반적인 반응으로는 경계하며 질책을 했을텐데 엘리사벳은 이미 그 태아가 누구인줄을 알고 기뻐하며 믿음과 소망을 준다. 그녀가 마리아에게 한 말을 들어보라. '네 주의 모친이 내게로 나오나' (눅 1:43)라고 고백했다. 이 얼마나 놀라운가? 엘리사벳은 예수가 나시기도 전에 마리아가 구세주의 어머니인 것을 알고 있었다. 이것은 그녀가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였음을 보여준다. 그녀는 임신 중에도 산에서 기도하였다. 이러한 엘리사벳이 소망을 주는 소리를 듣자 마리아의 입에서는 찬송이 터져 나왔다.

엘리사벳은 참 인내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는 것은 체험과 간증이 되어 마리아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었다. 이것을 준비시키기 위하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엘리사벳에게 보냈다. 인내심은 모든 어머니들의 공통점이다. 그러나 인내심이 우리의 가슴 속에서 우리의 것이 되면 하나님의 뜻이 가된다. 엘리사벳이 세례요한을 자신의 품속에 두지 않고 광야로 내보낸 것을 보면, 그녀의 인내는 완전히 하나님께 의지한 것이었다. 현대의 어머니들의 인내는 자녀를 내 안에 두고 내 것으로 만들려 하기 위한 인내가 아닌가? 믿음의 시련이 참 인내를 만들어 낸다(약 1:2-4). 믿음으로 인내를 이루면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지금까지 얻은 것을 배설물같이 여겼노라' 라고 한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라. 세상의 것을 자녀들에게 개 최고의 것으로 가르치지 말라. 인내를 사람의 것으로 만들지 말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인내는 우리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단기선교를 위하여

마음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사역지	날짜
소망부	몽골A	8월 12일(월)~8월 22일(목)
사랑부	인도	8월 12일(월)~8월 21일(수)
13교구	우즈베키스탄A	8월 13일(화)~8월 21일(수)
연합	우즈베키스탄B	8월 13일(화)~8월 21일(수)
9교구	카자흐스탄	8월 13일(화)~8월 23일(금)
12교구	몽골B	8월 14일(수)~8월 23일(금)
5교구	몰디비아	8월 14일(수)~8월 24일(토)
4교구	루마니아B	8월 15일(목)~8월 24일(토)

*과테말라로 단기선교를 떠났던 대학생 선교단,

체코로 단기선교를 떠났던 3교구 선교단,

루마니아로 단기선교를 떠났던 대학생 선교단,

불가리아로 단기선교를 떠났던 7교구 선교단,

도미니카로 단기선교를 떠났던 유년부 선교단,

스리랑카로 단기선교를 떠났던 영아부 선교단,

몽골로 단기선교를 떠났던 1교구·14교구·

7교구·청년1부선교단,

카자흐스탄으로 단기선교를 떠났던 15교구 선교단,

엘살바도르로 단기선교를 떠났던 함례루아 선교단,

방글라데시로 단기선교를 떠났던 공동부 선교단,

우즈베키스탄으로 단기선교를 떠났던 청년1부 선교단이

지난 주에 무사히 귀국했다.

단기 선교단을 통해 선포된 복음이

각 나라와 지역에 뿌리내려 자라고

더욱 기도로 열실지,

선교사 이야기

스탠리 존스(E. Stanley Jones)

학생 자원자들 : 부귀와 명성을 포기함

19세기 말에 시작되어 약 50년간 지속되었던 학생 자원 운동(Student Volunteer Movement)은 세계적인 성공의 길을 보장 받은 것처럼 보였던 캄브리지의 7명의 대학생들이 출세하고자 하는 야망을 버리고 해외선교사로 헌신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20세기 초에 전세계 개신교 선교사중 학생 자원자들이 차지한 비율은 전체의 절반가량이었다고 추정된다. 그들 대부분은 문화 수준이 높은 민족들에게 가서 일했으며, 거의 삼분의 일이 중국을 지원하였다. 학생 자원자들은 기존의 선교사들과 달랐다. 그들은 신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았지만 일반 학문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었고, 그 덕분에 타 종교나 문화에 대해 다른 이해와 접근 방법을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런 접근 방법이나 이해가 선교에 좋은 영향만을 미쳤다고 할 수는 없다. 케네스 라루벳은 "성경의 권위와 기적을 부인 내지는 경시한 개신교 자유주의는 중국의 기독교에 강력한, 그러면서도 무력한 세속주의를 전래 시켰다." 라고 평가하며 "세속화 운동"은 중국의 기독교가 공산주의에 패배한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지적한 점은 지금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1884년 메틸랜드에서 출생한 스탠리 존스는 애즈메리대학(Asbury College)에 재학 중 학생자원자가 되었다. 그는 1907년 갈리리 선교사로서, 인도의 빈민층을 상대로 사역을 시작하였지만 곧 인도 상류의 지식층이 그의 주 선교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인도 지식층은 그리 만만하지도 쉬운 상대도 아니었다. 그들은 언제나 날카로운 질문으로 그를 곤경에 빠뜨렸으며 그는 이로인한 실패 스텔레스를 8년 동안 지속적으로 받았다. 도저히 빠져 나올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그 정신적 압박감에서 그를 구한 것은 주님이였다. 그의 기도의 응답으로 주님이 주신 평안이 그에게 밀려왔고, 그 후로는 두 번 다시 정신적 압박감을 느끼지 않았으며 오히려 선교사로서 인도 지식인들 사이에서 그의 명성은 커져만 갔다.

스탠리 존스는 기독교와 서구문명을 분리시키려고 노력하였다. 그는 인도인들이 그들의 문자와 관습에 따라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낫다고 믿었다. 복음 사역자로서 그의 임무는 제도적인 개혁을 확정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고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방법으로 예수를 믿게 하는데 있다고 주장하였다. "인도에는 아름다운 결혼 풍속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복음사역을 해야 할 것인지를 설명해 주는 데 같다. 결혼식에서 여자 친구들은 음악과 함께 신부를 신랑의 팔까지 데려간다. 그리고 신부를 신랑의 변전까지 인도해 주고는 — 그들은 더 이상 잘 수 없다 — 떠난다. 그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고, 소개해 주고 떠나야 한다. 그것이 반드시 지역적으로 떠나는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교를 인도에 의탁하고, 인도는 그리스도교에 의탁해야 한다. 우리는 거기까지만 할 수 있다. 남은 길은 주님과 인도가 함께 가야 한다." 문화적 자긍심이 강했던 인도인들에게 오직 그의 문명의 틀 안에 갇힌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우리 이 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란 전파하겠다는 그의 의도는 인도 상류층에 강한 영향력을 남겼다.

(루스 터커의 '선교사 열전'에서)

카자흐스탄에서 만난 농아인들

채 경 안 (농아인, 예배대부 청년반)

일본 선교 때의 수화가 비슷해서 대화가 어려움이 없었으나 카자흐스탄은 한국과 수화가 전혀 다르다. 그래서 카자흐스탄을 가면서 수화도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지만 그곳 농아인들과 마음으로 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첫날, 새벽 2시에 공항에 도착해서 잠도 못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농아문화센터를 방문해서 농아인협회 회장과 임원들을 만났다. 반갑게 인사했으나 카자흐 수화단이 몇 개만 외워 대화하러니 힘이 들었다. 가기 전에 목사님과 함께 카자흐 수화를 열심히 연습했으나, 러시아 수화와 혼용이 되어 처음에는 대화가 힘들었다. 그래도 온몸과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말 없는 몸짓으로 대화하면서 서로의 마음이 열리고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되었다. 둘째 날은 더욱 수화가 잘 통하게 되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농아인들은 대부분 자신을 이슬람교도라고 말했지만, 우리들이 담대하게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강하게 설득하니 수긍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만났을 거들하면서 깊은 신앙 문제까지 이야기하게 되었으며, 예수를 믿기로 약속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다. 그렇게 전도하여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은 우리 선교단원들과 함께 전도지를 나누어주며 함께 선교하라고 했다. 나는 말을 못하는 대신 '북 루트 바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를 수화로 선포했다. 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했다.

일반인들도 마찬가지로 이 곳 농아인들의 삶은 참으로 가난하고 힘든 모습이었다. 우리 돈으로 한 달에 5만원 정도 수입을 가진 농아인 이발사가 형편이 좀 나은 편이고 대부분 한달에 2-3만원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이곳의 주식인 빵과 양고기라고 들었는데 우리는 선교 기간 동안 양고기를 단 한번 먹어보았고 어떤 대원은 아침마다 빵 먹는 일에 실증을 내기도 했다. 그러나 가난한 농아인들을 생각하면 그나마 배불리 먹을 수 있음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저녁에는 매일 농아인 가정을 심방했다. 가난하고 초라한 외형과는 달리 농아인들은 주어진 환경에서 모두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다.

토요일에 선교집회를 개최했다. 사흘동안 열심히 다해 전도하고 홍보한 덕분에 200여명의 농아인들이 모여 165명이 결신하였다. 선교단이 준비해 간 성경을 공영하고, 말씀선보 그리고 결신자 상당으로 이어진 이날 행사는 저녁 늦게까지 계속되어 은혜가 넘쳤다. 주일에는 갈보리 장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 목사님의 설교는 러시아어와 카자흐 수화 그리고 한국 수화까지 모두 4개 언어로 동시 통역되어 설교 내내 '아멘'이 끊이지 않았다. 300명을 수용하는 예배당이 비좁아 많은 사람들이 창 밖에서 예배드렸다. 농아인들만 100명이 넘었다. 주일 오후에는 교회에 처음 나온 농아인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특히 카자흐스탄에 여호와 증인이 많다고 하는데 사실이려면 충격적인 일이다. '참된 진리와 참된 복음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거짓 그리스도인들에게 쉽게 빠지냐'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께 기도했다.

알마타를 떠난단 날, 공항에까지 나온 사람들로 우리는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다. 15명 정도가 나왔는데 예수를 믿겠다고 굳게 약속한 사람들 중 차비가 없어서 시내에서 3시간을 걸어서 공항까지 나왔던 사람을 잊을 수가 없다. 그분은 소련군인 출신으로 이슬람교도였는데 다음에 우리가 다시 간다면 틀림없이 신실한 성도가 되어 우리들을 맞이해 줄 것으로 확신한다.

이번 선교를 통해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이 사랑이며, 무엇이 왜인지를 깨닫게 하셨다. 이러한 귀한 경험은 일주일간의 어려웠고 힘들었던 일들을 저 하늘 높은 곳으로 사라지게 했다.



영명의 나병환자와 예수님

김 지 형 (집사, 의료전도회)

4부 예배가 끝난 오후 2시, 교육관 5층 의료 전도회 방은 갑자기 분주해지기 시작한다. 예전에는 한산했던 의료 전도회 사무실은 진료료를 받고자 주일마다 찾아오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수가 점점 늘어 이제는 발 디딜 틈이 없다. 주로 저소득 국가로부터 한국에 들어와 있는 수십만 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은 산업 연수생이나 유학생, 여행비자로 들어와 돈을 벌기 위해 몇 년간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

예외는 있지만 낮은 임금과 혹독한 근로 조건에서, 때로는 부당한 대우와 가혹 행위를 당하며 한국에서 어려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의료보험이 없어서 다치거나 아프면 값비싼 의료비를 지불해야 하고, 행여 단속에 걸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외출도 꺼려하는 이들의 건강상태는 좋을 리가 없다. 어렵게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와 성경공부 후 의료 전도회를 찾는 이들을 위해, 매주 각 진료 과목별로 여러 장로님과 집사님들께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다.

그러나 진료만을 받기 위해, 약만 타가기 위해 교회를 나오는 이들도 있고, 심지어 교회 뜰에는 발도 들어놓지 않고 주위를 맴돌다 시간 맞춰 들어오는 이들도 있다. 가끔씩 밀려드는 회의 속에 낙심하게 되면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받는다.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 밟으며 마음을 추스른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고통을 결코 무시하지 않으셨다. 천국에 속한 복음을 전하시면서도 이 땅의 고통과 배고픔에 사랑으로 귀 기울이셨다. 배고픈 무리를 바라보며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고, 질병과 죽을 앞에서 나약한 인간의 모습에 눈물을 흘리셨고 줄을 지어 찾아오는 병든 자들을 물리치지 않으셨으며 그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발하셨다.

누가복음 17장에는 예수님께서 마음 읽은 열 명의 나병환자 이야기가 나온다. 이들 중 사마리아인 단 한 명만이 다시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로 머리를 숙였고 나머지 아홉은 돌아오지 않았다. 예수님은 아홉을 책망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마리아인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선포하셨다.

이 말씀이 특히 위로가 된다.

지난 3년 간 찾아온 외국인 근로자 중 치료 진료 기록만을 세어보니 200장이 넘었다. 지난 6월 16일에 있었던 것처럼 매년 한 번씩 있는 외국인 근로자제를 초청 전도회 때 왔던 환자들의 수가지 합하면 그 수는 두 배가 넘는다. 종종 이들 중 파열 몇 명이 새롭게 주님을 영접할까 하는 의문을 가져본다. 늘 아쉬움이 남는 이유는 분명 육신의 치유만을 생각하고 영적인 치유를 생각지 못하는 이들이 많음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직접적인 손길을 받은 나병 환자들도 열 명 중 단 한 명만 구원받았는데, 하물며 예수님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나 같은 죄인의 손과 기도를 거친 수백 명 중 단 한 명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겠는가.

어쩌면 앞으로 내게 진료받을 수천 명 중 단 하나, 수만 명 중 단 한 명만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 할지라도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위해 평생토록 헌신할 마음의 준비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한다.

내 뒤에는 그들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선포하실 예수님의 뉘이 항상 남겨져 있음을 기억하며...

2002 단기선교 3차(10-12월) 모집

2002 단기선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진행되어 9월까지 67개팀 700명이 마침니다.

이제 3차팀(10-12월)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팀 구성 / 각 교구 및 부서
2. 팀 구성 인원 / 10-12월
3. 기간 / 02. 10.1-12. 31
4. 자격 / 1) 우리 교회 세례교인으로 등록한지 1년 이상 된 사람.
2) CMTC 수료자 또는 앞으로 수료 예정자(9월 중 3차 CMTC 예정)
5. 선교할 나라 / 희망 국가(다만 선교위원회와 협의할 것)
6. 팀 훈련 / 팀장 주재 하에 팀훈련을 하되 언어훈련, 전도훈련이 포함되어야 함.
7. 기타 / 팀 구성은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팀장, 총무는 본부에서 임명합니다.
8. 신청할 곳 / 선교관 4층 선교위원회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백 영화 (청년1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까지 이르리니 (엡 4:13)"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저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주님이 귀이 약삭속 너무나 낙엽과 이기적인 저를 발견하지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리 놓고 의뢰, 간구함으로써 성장해 나가는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깊은 사랑과 전지전능하심을 전하고자 신임부에서의 작년 여름 지방 교회 사역 일정을 확인했더니 제 휴가와 맞지 않아 안타까워서 올해는 사역일정과 휴가기간이 일치하기를 두손 모아 기도했습니다. 그로부터 두 달이 지났을까, 다행스럽게도 제 휴가기간과 사역일정이 일치하여 3박 4일 기간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또한 바쁜 직장생활 가운데 틈틈히 시간내게 하셔서 하나 하나 주님이 준비해 주셨고, 성경학교에 대한 막연함으로 두렵고 떨렸으나 그 두려움을 차츰차츰 구체적인 알과 기쁨으로 바뀌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저를 위해 청년부 사역을 미리 예비하시고 계획하셨다는 것을 체험하게 하시니 놀라고도 행복합니다.

그러나 주님, 지난 사역장에서의 복음을 전할 때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냉정하게 복음을 거절하고 인상을 찌푸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번 사역장에서 주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을 만날 때 기대와 소망을 안고, 그분들을 위해 전심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눈과 맘으로 그들을 향해 복음되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더불어 회개와 성장하고 등 제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겸손한 자세로 잘 감당해낼 수 있길 소망합니다.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시는 주님. 부족하고 낙엽한 저를 들어 귀한 도구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확장교회(여름 사역한 지방 교회)에 가서 근처의 상한 영혼들을 전도할 때, 주님을 '나의 하나님 아버지'로 고백하고 제 집을 찾아 평안함을 얻어 주님만이 이 세상에서 최고 자랑거리가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시고, 주님이 제게 맡기신 삶에 큰 열매 맺는 기쁨이 되게 하시고 제가 주님의 은혜를 감당할 빈 그릇으로 나아가서 그곳이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묵상

영광을 위해

본문 : 로마서 8:18-25

안 복 남 (청년1부)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자녀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는데 그 고난은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도 없으며 모든 죄로중도이 영광을 위해 단식하며 고통 받는다'고 하였다. 왜냐는 이런 영광을 위해 단식과 고통을 기꺼이 받아들이지 못할까? 마음이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다. 벌써 6년동안 피사생활을 하면서 세상의 가치관이 은근슬쩍 나를 파고들며 돌아왔다. '이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단이 '세상이 이러니 나도 이럴 수 밖에 없어'라는 식의 생각을 슬며시 부추긴다. 세상은 경쟁사의 속에서는 시기, 질투, 아부, 사람에게 인정 받고자 한, 돈욕심 등이 그치지 나쁜 것이 아니라고 한다. 오히려 이런 것을 뜻하면 바로 취급당하기 일쑤다. 이젠 크리스천은 세상에서 인식을 하는 것으로 인해 고통 당한다는 느낌이 든다. 크리스천들이 믿을 지키는 것을 후회하게 만들고 크리스천들을 더욱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 같다. 물론 사단의 목표물은 나를 포함한 크리스천들이다.

하지만 오늘의 성경 본문에서 말씀하신다. 앞으로 올 영광에 비하면 이러한 고통들은 별게 아니라는 것. 이제 그 이러한 고통 속에서라도 영광과 구원을 소망할 때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게 마련다. 나 혼자만 이리 고통을 받는다면 무척 힘들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녀들이 받는 고통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통이니 이제 세상으로부터 바로 취급 받는 고통 좁은 별게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또한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참 생명이 있다는 걸 믿기에 더욱 그 고통은 하찮은 것으로 여긴다. 오직 하나님만 주시는 참으로 비밀한 기쁨이 그 고통을 덮을 수 있다. 또 한가지, 하나님이 나의 연합함을 아시기에 막강 파워 성령님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고 기도하시니, 세상은 우릴 바라보고 하지 만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며 기쁘게 찬송할 수 있는 하루가 될 것이다.

말씀묵상

하나님의 뜻

본문 : (눅 10:25-37)

임 수 연 (청년1부)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아직도 모자라며, 채워야 할 부분이 많이 있음을 다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고, 주위로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을 찾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나 자신을 들여다볼수록 나에게 이웃을 사랑할 힘이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33절, 34절에서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그의 이웃이 누구인지 물었을 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 주셨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겨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어 돌보아 주었는데,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과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상처입은 죄인에 지나지 않으므로 우리를 사랑해 줄 이웃이 필요함을 보여 주셨습니다. 또 우리들이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상처 받은 사람들임을 깨닫게 해 주셨으며, 그들수록 우리를 사랑해 줄 예수님이 필요함을 간절히 느꼈습니다.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만한 자격이 없지만 우리에겐 이미 선한 사마리아인인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지만 다시 사셨으며 지금도 늘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료해 줄 이웃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때문에 죄인의 이웃이시고 죄인의 구주이신 그분을 마땅히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죽음을 준비하기

5. 열매맺는 죽음

얼마 전 결핵성 폐종양 진단이 나와서 입병동에 들어갔었다. 입원자들은 심하게 날라뛰거나 완전히 평안했다. 그 중에 유난히 날라뛰는 한 폐암 말기환자가 있었다. 그는 아들과 아내가 자신의 재산(그는 한 중소기업 사장이다)을 탐내다며 신경질을 부렸다. 나는 그에게 퇴원하기 전에 복음을 제시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좀처럼 기회가 오지 않았다. 그의 신경질적인 반응이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나의 종양은 약물치료가 가능한 것으로 진단이 나왔고 나는 퇴원하게 됐다. 퇴원 전날 그에게 꽃을 한 다발 안겨주며 복음을 전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을 평안하게 해 주실 것'이라고. 그런데 놀랐게도 그는 과거를 고백했다. 그는 원래 예수를 아주 잘 믿었으며 군에서는 군종교도 있었다. 그런데 삶에 저들다 보니 하나님과 멀어졌으며 이제 너무 약해져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인간은 모두 약하며 구원은 죄인에게 오는 것임을 전했고, 그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다음날, 가족들이 왔을 때 그는 신경질을 부리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재산을 적절히 분배했고 자신이 지금까지 터득한 경영 마인드를 아들에게 전해주었다. 가족들은 당황하자 이내 울음을 터뜨렸다.

입막한 죽음에 관해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큼 나에게 영향을 준 것은 없다. 예수님은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 매우 직접적으로 자신의 최후를 이야기했다. 자신의 죽음의 목숨과 몸과 마음을 아끼면서 그 죽음을 좋은 것으로 선포하셨고 온갖 소망을 약속하셨다. 죽음을 미리 준비시키신 예수님의 이 방식이 예수님같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적용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으며 예수님처럼 부활하도록 초대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예수님 죽음뿐 아니라 우리의 죽음도 다른 사람들의 삶 안에서 열매맺게 되어 있다. 그 폐암 말기 환자의 경우를 보라. 죽음의 반응이 달라지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는가? 그의 죽음은 그의 가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열매를 맺은 것이다. 후 현대 하나님을 믿는 가족이었다면 세상보다 천국을 소망하게 하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죽음은 영원토록 열매맺는 길이 된다. 바로 여기에 죽음의 가장 희망적인 측면이 있다. 죽음은 성장이나 생산성이나 명예의 종말일지는 모르지만 열매의 종말은 아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에 신경을 쓰지만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느냐를 기억한다. 그 폐암 말기 환자는 이제 '천국을 소망하는 자'로 기억되며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사람들을 변화시킬 것이다. '중소기업 회장이었던 자'는 아무런 열매도 아닌 사람들.

(권오섭 기자)

예수님을 역할극을 통해서 느껴보았어요

"주인도신예수님"



윤 숙 희 (유년부 교사)

주일학교 교사들의 큰 고민 중의 하나가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 깊이 느끼게 해 줄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아나 있습니다.

유년부 교사들도 매주일 이 문제를 놓고 연구하다가 어떤 선생님의 제안을 받아들여 이번 여름성경학교 성경 공부시간에는 역할극을 도입해 보기로 하였다.

먼저 성경공부 내용을 각본으로 만들어 워크북에 수록하여 아이들이 집에서라도 가족들과 연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선생님들은 미리 역할극 내용을 연습하여 무대에 올라 아이들에게 시범을 보여 주었다. 시범이 끝난 후 바로 각 반별로 담임 선생님과 함께 10-20분 정도 성경내용을 공부하여 충분히 역할극 내용을 이해한 후 각자가 한 역할씩 맡아 연극을 해보았다.

성경학교 둘째 날에 공부한 '잃어버린 자를 찾았어요'의 주제에 맞게 연출한 뽀나 무에 올라간 삭개오 사건은 아이들에게 여러가지 생각해야 할 문제를 던져주었다. 예수님은 어떻게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삭개오를 찾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삭개오의 이름을 아실 수 있었을까?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며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하셨을 때 과연 삭개오는 어떤 기분이었을까? 예수님의 눈과 삭개오의 눈이 뽀나무에서 마주쳤을 때 삭개오와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내가 만약 삭개오라면, 내가 만약 예수님이라면, 내가 만약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과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우리 한반 삭개오가 되어서, 예수님이 되어서 이 장면을 연출해 보자.

아이들의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다. 나름대로 열심히 분장을 하여 삭개오가 되기도 하고, 예수님이 되기도 하고 뽀나무가 되기도 하며 한 시간 내내 진지하고 즐겁게 성경공부를 하였다. 삭개오가 자기 집에 예수님을 모시게 된 행복함을 가슴 깊이 느끼게 된 시간이었다.

질문의 생

마가복음(Mark)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①

신약성경에는 마가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 만난 것에 대해 기록한 곳이 없습니다. 그 대신 마가는 사도행전 12:12에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해돋이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는 등 핍박이 몰아닥쳐 왔을 때 제자들이 마가의 집으로 피신하여 기도하게 되는 데, 이때에 마가가 최초로 등장합니다(행 12:12). 그리고 해돋이 죽은 후, 마가는 바나바와 바울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었고(행 12:25), 1차 선교여행에 동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밤빌리아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마가는 예루살렘으로 되돌아버렸습니다(행 13:13). 마가의 이러한 행동은 바나바와 바울로 하여금 심히 다투고 갈라서게 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행 15:37-39). 그런데 11-12년의 시간이 흘러서 마가는 새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등장하여서 바울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는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고(골 4:10),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으며(로 1:24), 바울에게 매우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딤후 4:11). 그리고 결국 마가는 베드로에게 매우 소중한 영적인 아들이 되었습니다(벧전 5:13). 그리고 그는 베드로 사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들은 것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마가복음을 어떻게 읽을 것인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 매우 간결하고 신속하게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곧" (immediately, 또는 at once, quickly, just then)이라는 부사입니다. 이 단어는 47번이나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마가복음을 제외한 신약성경 전체에 나온 숫자보다 많습니(Towns, Gospel Themes). 또한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성경의 길이가 짧은 뿐 아니라 이야기도 매우 간결하여, 현실감을 주기 위해서 과거의 일을 현재시제로 서술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행하신 일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과 같이 분명한 일이나,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순종만 하라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과거의 일은 철저하게 과거시제로 기록한 누가와와는 뚜렷한 대조가 됩니다). 그리고 마치 달리기 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주거나(막 7:30, 16:8), 생략이 잦은 것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마가는 예수의 탄생기사도 생략했고, 골 부분도 갑자기 끝난다). 그러므로 마가복음은 간결하고 간단한 것을 좋아하는 현대인들에게는 매우 친근하게 와 닿는 복음서입니다.

(다음주에 계속)

김동하 목사(순천교 지도)

기 도

양 제 모 (소년부 전라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 하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고,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아무 대나 해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예레미야 33:3절에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괴로울 때 기도를 하면, 하나님

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세요

김 유 승 (예배부 청년1반)



어렸을 때부터 이수도 없이 자주 아프고 걸어다니지도 못할 정도로 허약했습니다. 병원에 다녀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건강하고 밝게, 활발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 정말 부러웠습니다. 나도 그렇게 건강하다면 얼마나 좋을 까? 땅껏 뛰놀고 싶다는 생각에 건널 수 없어서 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여서 더욱 괴롭고 고통스러웠습니다. 해서는 안될 일이지만, 어쩔 수 없이 정말로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다도 모르게 자살을 시도하고 말았습니다. 어이없이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운이 없이 하나님께 버려진 인간으로 태어나서 괴로울까? 하나님은 불쌍하고 어린 나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왜 나만 그럴까?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고 생각하는 하나님을 원망했었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은 게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살 수 없을 만큼 너무 괴로웠습니다. 길을 잃은 한마리 어린 양처럼.

심하게 다친 어떤 여자가 예수님의 옷을 만지자 병을 고치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읽고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나? 과연 예수님의 옷을 만지면 병을 고칠 수 있을까? 많은 의심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둥병과 앉은뱅이 등 수 많은 병들을 기적같이 고치는 것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의심을 했던 도마처럼 저도 눈에 보이지 않은 존재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속앓이를 하던 중학교 1학년 때 또다시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밤 중에 악몽에 시달려 신음소리를 내고 온 몸이 땀을 흘리면서 건달 수 없을 만큼 몸이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때에야 저는 눈을 떠서 제가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의지하고 있으면서도 부인하고 있었던 예수님을 깨달았 기도했습니다. '주여, 의심을 하지 말게 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제발 나를 버리지 말아 주세요. 지금 너무나 괴로워요' 그때 저는 제가 나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를 달고 귀중한 몸을 흘리신 예수님을 깊이 사랑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나의 영원한 구원자이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했습니다. 주여, 지금처럼 아무도 없는 깊은 밤 암흑 속에서도 아름다운 빛이 되어 저를 건져주소서. 내 영혼을 건져주소서.

눈부신 아침 햇살이 절 비쳤습니다. 눈을 떠밖을 내다보면서 밝고 맑은 아침에 맡을 수 있는 예수님의 향기를 맡았습니다. 그날 밤 기적적으로 건강이 좋아졌습니다. 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의 기도를 했습니다.

부디 여러분은 보이든 안보이든 의심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옷을 만지다가 병 고친 어린처럼 제게 믿음을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늘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길.

